

기업윤리 브리프스 *Business Ethics Briefs*

1. 기업의 책임보고서 진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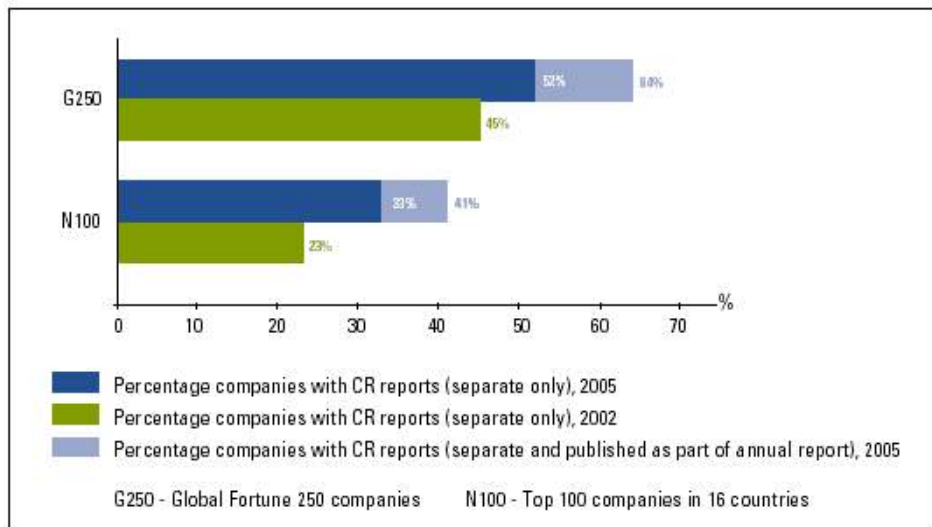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책임성(*Corporate Responsibility; 이하 'CR'*)은 기업의 평판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을 초월하여 점차 영업활동 핵심가치(*core business values*)로 부상
 -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성과에 대한 보고서도 법적으로 규정된 재무제표 등 양적데이터의 공시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(*information*)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
- 이와 관련하여 최근 KPMG는 2005년도 기업의 책임보고서(*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*) 서베이 결과를 발표
 - KPMG는 1993년 이후 암스테르담 대학과 공동으로 3년마다 기업의 책임보고서를 조사·분석
 - 대상기업은 기업의 책임보고서가 관행화된 Fortune지 선정 상위 250대 기업(이하 'G250')과 16개 국가*의 상위 100대 기업(이하 'N100') 등 1600여 개 기업
 - *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호주, 벨기에, 이탈리아, 덴마크, 네덜란드, 스페인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 캐나다, 남아공
 - 대상보고서는 기업이 별도로 발간한 책임보고서 또는 기업의 책임성이 수록된 연차보고서중 2003 회계연도 기준 보고서 (2004.9~2005.1월중 수집)

□ 서베이 결과 CR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비율은 1993년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뚜렷이 상승

○ CR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기업은 G250의 경우 2003년 45%에서 2005년 52%로 상승하였으며 N10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중 23%에서 33%로 높아짐

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G250의 경우 64%, N100의 경우 41%로 더욱 확대

CR 보고서 발간기업 비율 추이



자료 : KPMG

○ CR 보고서의 유형변화를 보면 1999년까지 기업들은 순수한 환경보고서 발간에 치중하였으나 이후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, 경제적 이슈 등도 포괄된 지속가능(sustainability)보고서 발간이 주류

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비율은 2005년 68%(G250) 및 48%(N100)로서 2003년의 14% 및 12%에 비해 4배 이상 확대

□ 국가별 CR 보고서의 발간 현황을 보면 남아공,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보고서를 별도(stand-alone) 발간

○ 이중 일본과 영국 기업의 별도 보고서 발간 비율은 각각 80% 및 71%로서 상위를 차지(N100 기준)

- 이탈리아, 스페인, 캐나다,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2002년 이후 별도 보고서 발간 기업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확대

- 반면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감소

- 업종별 CR 보고서 발간 현황을 보면 G250 및 N100 기업의 모든 업종에서 발간 비율이 상승

- G250의 경우 환경에의 파급영향이 큰 전기전자(컴퓨터 포함)·수도·자동차·석유 및 천연가스 영위업종 기업의 80% 이상이 CR 보고서를 발간

- N100의 경우에는 수도·광산·종합석유화학·임산·제지 영위업종 기업의 50% 이상이 CR 보고서를 발간

- 특히 전통적으로 진전속도가 더딘 금융업종의 발간 비율이 현저히 상승하였는데, 이는 금융기관의 CR 관련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반영

- CR 보고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맞추어 기업 책임성의 동인(動因: *drivers*)도 보다 명확해지는 모습

- CR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책임성의 동인은 경제적인 고려(*economic considerations*)가 주류(74%)를 이루는 가운데

윤리적 고려(53%), 혁신 및 학습(53%), 종업원 동기부여(47%), 위험관리 및 축소(47%) 등으로 나타남

기업의 책임성 동인

동인	비율(%)	동인	비율(%)
경제적 고려	74	평판 또는 브랜드	27
윤리적 고려	53	시장점유율 개선	21
혁신 및 학습	53	공급자와 관계 강화	13
종업원 동기부여	47	비용 절감	9
위험관리 및 축소	47	정부와의 관계 개선	9
주주가치 증대	39	기타	11

자료 : KPMG

□ CR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요 이슈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대상기업의 40%가 GRI(Global Reporting Initiative)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조사

○ 반면 기업 보고서의 주요 이용그룹인 주주 및 금융 애널리스트 등 이해관계자(stakeholder)와의 협의를 거쳐 주요 이슈를 선정한 기업 비율은 21%였으며 국가의 규범 및 영업원칙(business principles)에 따라 선정한 비율은 각각 13% 및 3%에 불과

CR 보고서 주요 이슈 선정 방법

선정방법	비율(%)
GRI 가이드라인	40
이해관계자와의 협의	21
기타(국가기준 및 규정)	13
영업원칙	3
AA 1000 원칙	1
리스크 평가	1

자료 : KPMG

□ 한편 아시아 국가 대다수 기업들의 CR 보고서 발간수준은 초보단계 있는 것으로 분석

○ 다만 아시아 국가중 일본의 CR 보고서 수준은 서방국가에 비해 월등

○ 한국의 경우에는 CR 보고서 발간이 지난 2년간 급격히 증대

○ 여타 아시아 국가의 CR 보고서 발간 관행은 진전속도는 느리나 꾸준히 발전하는 추세

— 인도의 경우 철강, 자동차, 오락산업을 중심으로 GRI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점차 CR 보고서 발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은행 구조개혁에 따른 민영화 기대에 힘입어 일부 은행이 CR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

— 반면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태국 등은 성장 속도가 고착화된 상황

2. 기업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- (iv)

* 미국 상무성의 「기업윤리: 신흥시장국에서 책임 있는 기업의 경영 편람」중 제7장 “기업윤리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”(Business Ethics Communications and Feedback)에서 발췌

□ 대부분의 종업원들에게 있어 동료직원의 부정 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

○ 많은 종업원들이 친구와 동료에 대한 충성심(loyalty)을 기업에 대한 충성심보다 중시하고 있는 데다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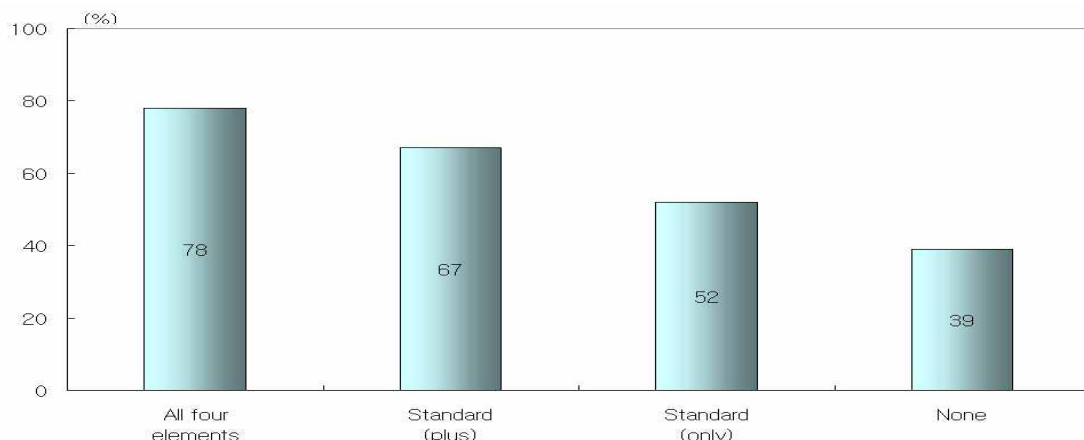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신고자를 “용감하고 윤리적인 자”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“고자질장이”로 취급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해 온 데도 기인

□ 기업윤리 프로그램은 종업원들에게 신고의 중요성, 신고방법, 신고의 장점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기여

○ 최근의 연구결과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네 가지 요건*을 갖추어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부정행위를 신고할 의향을 가진 종업원이 78%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39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

* 서면으로 된 기업행동 기준 확립, 행동 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, 윤리부서 또는 상담전화 설치, 익명의 부정행위 신고수단 마련

종업원의 부정행위 신고의향 비중



- 기업은 제안제도, 상담전화,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구축하여 종업원들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
 - 아울러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호함으로써 신고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차별을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
- 기업윤리 프로그램에서 신고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고사안의 조사 및 조사 결과, 시정(예정)조치 등을 신고자에게 피드백 해주는 것이 핵심
 - 부정행위를 목격한 종업원이 신고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'신고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'이라는 설문조사 결과(첫 번째 이유는 '보복에 대한 두려움')에서도 피드백의 중요성을 시사
- 신고제도는 신고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
 - 관리자나 동료에 의한 보복은 부정 또는 우려사안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도록 하므로 어떠한 보복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
 - 간혹 신고 남용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종업원도 있으나 이를 처벌할 경우 전체 종업원의 신고기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조언이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신중히 대처
- 기업윤리 담당부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고전용 전화(Help-Line) 활용 가능
 - 전화번호는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료 전화여야 하며 자동응답기를 사용할 경우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은밀하고 안전한 장소에 응답기를 배치

-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이 있는 신고자가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원할 경우 신고자에게 인증 번호(*identification number*)를 부여하고 특정 시간에 다시 전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
 - 종업원의 익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고전용 전화를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위탁·운영하는 것도 가능
- 신고전용 전화를 통한 상담 또는 신고 내용이 인사 문제(*personnel issues*)에 관한 것일지라도 경영자가 이를 인사담당부서로 이관·처리하지 않도록 유의
- 그 이유는 경영자가 윤리문제(*ethics issues*)를 언급할 때 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공정함(*fairness*)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윤리문제와 직결시키기 때문
 - 또한 경영진이 신고전용 전화 상담내용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부할 경우 신고전용 전화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
 - 신고전용 전화를 사용한 종업원이 상담을 거부당했을 경우 동료 직원들에게 단지 거부당한 사실만을 언급할 것이며 경영자가 거부한 이유의 정당성 여부는 다른 종업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
- 상당수 대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자문을 구하고 특정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직 옴부즈맨(*organizational ombudsman*) 제도를 도입·운영
- 옴부즈맨 제도는 당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지금은 기업윤리 프로그램에서 종업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조언할 뿐만 아니라
- 특정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(*independent*)이고 중립적(*neutral*)이며 대안적(*alternative*)인 직제로 발전

3. 국내 기업의 기업윤리 동향

□ 농업기반공사의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*

* 국가청렴위원회 제출자료 요약

《 주요 추진실적 》

◎ 「청렴-HACCP(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) 제도」 도입·운영

- 이 제도는 부조리 예방 및 사업의 질(quality)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조리 요인을 규명하고 핵심 관리점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
- 주요내용을 보면
 - 각 사업(업무)의 추진절차를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 유사한 사업(업무)은 유형별로 그룹화
 - 각 공정 및 업무별 발생가능한 부조리 발생요인 및 유형 도출
 - 부조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관리점 설정, 부조리 예방대책, 부조리 발생시 조치방법 등 종합적·단계적 부조리 관리체계 마련
 - HACCP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
 - HACCP 추진상황 점검·평가·개선과제 도출과 아울러 차기 사업 추진시 피드백 등 사후관리 실시
- 동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는 부조리의 획기적 감축을 도모함과 아울러 청렴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신인도 및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

◎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임직원 자정결의대회 개최

— 「투명사회협약」 체결

- 일 시 : 2005. 6. 27(월), 11:00 ~ 13:00 (본사 대회의실)
- 참석자 : 총 71명 (공사 임직원 <44명>, 농업인 대표<1명>, 농민단체 <3명>, 협력업체<23명>)
- 참여단체 및 업체 대표가 「투명사회협약」 및 「시민참여헌장」에 서명한 데 이어 공사 임직원 전원이 「공기업참여헌장」에 서명
 - * 지방부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단체 및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전 직원이 「공기업 참여헌장」에 서명 (7. 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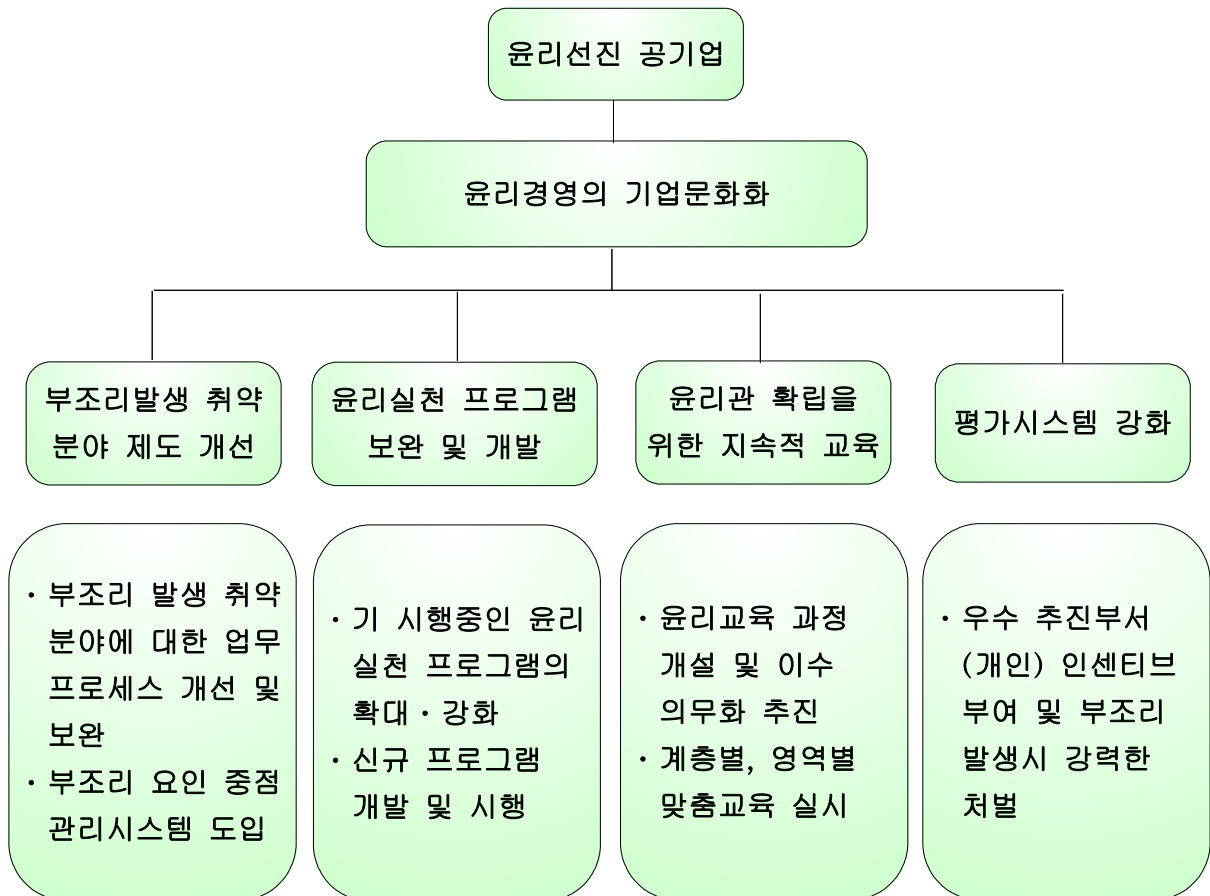
— 「임직원 자정결의대회」 개최

- 일 시 : 2005. 6. 27(월), 10:00 ~ 10:30 (교육원 대강당)
- 참석자 : 총 348명 (공사 임직원<345명>, 농업인 대표<1명>, 농업인 단체<2명>)
- “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자정 결의문”을 채택하고 법과 원칙의 준수, 부패·부조리의 척결, 경영투명성 제고 등 「공기업 투명사회협약」의 적극적인 준수를 다짐

— 이를 통해 공사내 부패청산과 아울러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효과 기대

《 향후 계획 》

◎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



◎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속 추진

-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, 전문가 초빙 윤리경영 특별교육, 변화관리 리더십 향상 교육 등을 연중 실시
- 아울러 현장혁신 문제해결 과정, 직원부인·자녀 교양강좌, 전문직무교육 과정중 기업윤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편성·운영

◎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·운영

- 부조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이행실태 점검
- 부조리 내부공익신고 센터 및 공사현장 Happy Call 제도 운영
-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- 부패방지 전담조직 활동 강화
 - 기존 전담조직을 「청렴혁신팀」으로 명칭 변경
 - 범정부적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강화와 아울러 비리사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
- 계약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지속 추진
-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와 현지관리 개선
- 사업과정의 투명성, 책임성 제고를 위한 「부패방지 계획서」 의무화 추진

◎ 농촌 지역민을 위한 공익활동 추진

- 도·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
- 농업기반대상 공모 및 시상
-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적 계도 운동으로 추진
- 농촌지역 일손돕기 및 봉사활동 전개